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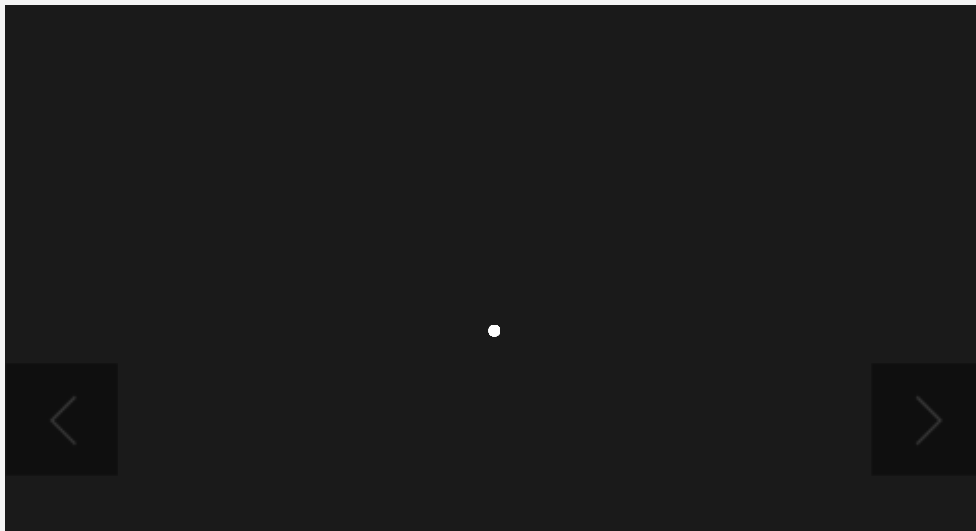
## 압록유원지

|                                                                                   |                                                                                                                   |
|-----------------------------------------------------------------------------------|-------------------------------------------------------------------------------------------------------------------|
|  | <p><b>주소</b> 죽곡면 섬진강로 1012</p> <p><b>전화</b> 061-360-8431</p> <p><b>추천</b> 3</p>                                   |
|                                                                                   | <p><b>이용시간</b> 연중개방</p> <p><b>휴무일</b> 연중무휴</p> <p><b>이용요금</b> 무료</p> <p><b>주차시설</b> 없음</p> <p><b>장애인시설</b> 없음</p> |
| <p><a href="#">관심여행담기</a> <a href="#">추천하기</a></p>                                |                                                                                                                   |

강을 통한 운송이 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시절, 두 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은 물산과 사람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 구실을 했다. 섬진강과 대항강(보성강)이 합쳐지는 곡성 압록포구도 그런 곳이었다. 옛 사람들이 일컬은 곡성팔경중 압록의 귀범(歸帆)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한 기점인 이 곳은 3만여평의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있는 한여름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자연유원지다. 여름에는 모기가 없어 가족단위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반월교와 철교가 나란히 강을 가로질러 놓여있어 운치가 뛰어나다. 특히, 보성강 하류의 유명 낚시터가 산재해 있어 강태공들에게는 인기가 높다. 강변에는 압록의 별미인 참게탕, 은어회, 매운탕을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점이 즐비해 있어 또다른 즐거움을 준다.

또한 이곳 압록유원지에는 「모기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강감찬 장군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다 이 곳 압록유원지에서 노숙을 하였는데 극성스런 모기 때문에 어머니가 잠을 청하지 못하자, 강감찬장군이 고함을 질러 모기의 입을 봉하였다.」고 한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아니면 섬진강의 시원한 강줄기 때문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에 모기가 별로 없다고 한다.





##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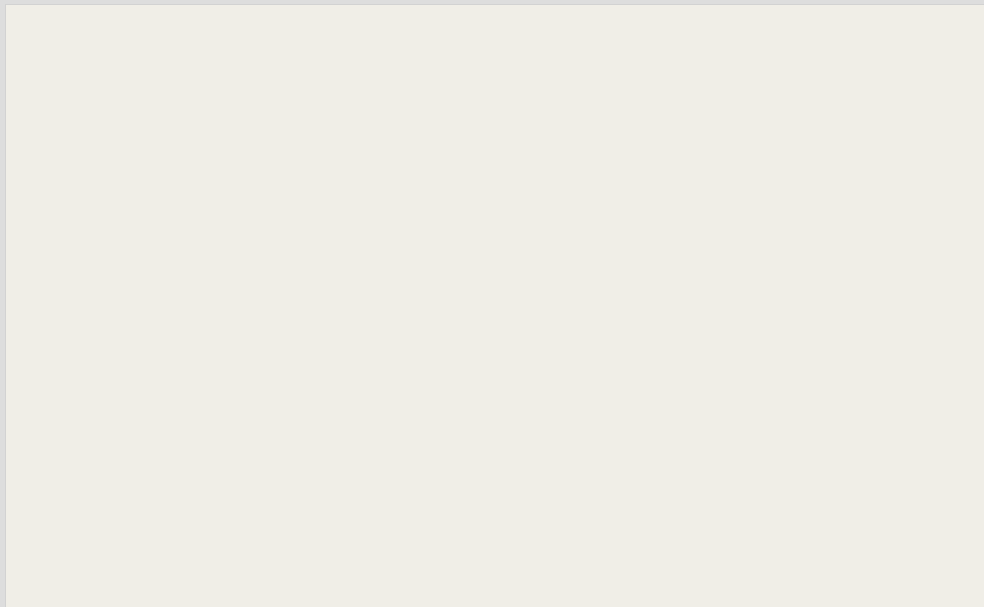
관광지

음식


숙박

+

-



 압록유원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12

 061-360-8431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압록유원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대중교통길찾기

1012

목록으로

(<http://www.gokseong.go.kr/tour>)



# ***Web Contents***

